

# 바람에 눕는 풀

도시빈민운동의 대모 김혜경

조배원



**김혜경** | 1945년 1월 6일 황해도 해주 출생 ● 1967-69년 국제가톨릭형제회(A.F.I) 회원, 가톨릭교리신학원 수료 ● 1969년 1-6월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지역사회실무자교육 수료 ● 1969년 6월-1971년 9월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현장활동가 ● 1971년 9월-1973년 9월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실무자 ● 1973년 10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업사목위원회(현 노동사목위원회) 총무 ● 1976년 3월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 설립 ● 1985년 3월 천주교도시빈민회 초대 부회장 ● 1988-92년 천주교도시빈민회 회장 역임 ● 1991-98년 관악구의회 1·2대 의원 ● 1995년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이사장 ● 1997년 12월 국민승리21 여성위원장 ● 2000년 6월 민주노동당 부대표(현) ● 2002년 7월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장(현), 서울시지부장(현)

민주노동당 부대표 김혜경. 요즘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를 알아왔던 사람들은 그를 '도시빈민운동의 대모' 로 기억한다. '사라 씨' '사라 아줌마' '사라 선생님' 등의 호칭에 더 익숙하다. 늘 친근하고 당당한 '사라 아줌마' 김혜경은 인터뷰 장소에 나오면서도 햇볕공 한 봉지를 사가지고 와 나눠먹자고 했다. 그는 이런 따뜻함과 소박함으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다.

박정희 정권이 '조국 근대화' 를 부르짖으며 개발독재를 강행하는 동안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땅을 버리고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왔던 사람들은 뚝방, 산자락 등에서 남루하고 불안한 삶을 꾸려야만 했다. 그나마 도심 개발 대상이 되면 다시 서울 번두리로 허겁지겁 쫓겨갔다. 난곡도 그렇게 쫓겨온 사람들의 동네였다. 골짜기가 깊어 공동묘지로 쓰이던 곳에 쓰레기처럼 실려온 사람들은 급한 이장으로 미처 수습되지 못한 해골들이 나뒹구는 것을 보고 동네를 낙골이라 부르며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다.

김혜경은 예수의 제자로서 낮은 삶을 살고자 했던 처음의 다짐대로 도시빈민운동의 일꾼이 되었다. 1973년 '난곡 사람' 이 된 이후 30년 가까이 비록 빛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을 삶과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세우는 일을 쉬지 않고 해왔다. 그가 지금 민주노동당 부대표로서 진보정당의 뿌리 내리기, 나아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도 처음의 다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하는 동안 그가 풀어내는 30여 년의 삶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그것을 뚫고 전개된 투쟁의 역사였다.

## 도시빈민운동에의 첫발 - 지역사회실무자교육

\*\*\* 도시빈민과 함께한 제 삶은 196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사회에는 저임금·저급가 유지 정책을 통한 국가 주도의 산업화로 이농·탈농 현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밀려든 노동력을 흡수할 기반이 없었던 대도시, 특히 서울은 순식간에 과밀화되었고 이농민의 상당수는 행상, 낱품팔이, 지게꾼으로 생계를 이어갔죠. 한국교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호품의 전달과 같은 자선활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말 교회 안에는 구제 또는 자선 수준의 선교활동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방향의 활동을 모색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박형규 목사님, 오재식 선생님 같은 분들이었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재식 선생님과 박형규 목사님은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조지 토드 George Todd 목사에게 사회선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지 토드 목사는 종파를 초월한 도시선교센터의 설립을 조건으로 자금과 훈련 담당자(허버트 화이트 목사)를 지원했는데, 그 결과가 1968년 12월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의 설립입니다. 도시문제연구소는 연구조사 분야와 도시선교 분야로 나뉘어 있었는데, 박형규 목사님이 도시선교위원장을 맡으셨지요. 도시선교위원회는 69년 1월부터 도시빈민지역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고 가톨릭과 개신교 각 교파에서 훈련생을 뽑았어요. 저는 도시선교위원회 위원이었던 박성종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님과 추기경님 등의 권유로 훈련생 모집에 응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국제가톨릭형제회(A.F.I. : Association Fraternelle Internationale) 수련생으로서 가톨릭교리신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피는 평신도로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단체로 인간 해방을 위한 사회참여를 활동 목표로 합니다. 저는 가톨릭 신앙인이 된 후 수녀가 되어 바닥의 낮은 삶을 살고자 했는데, 활달하고 솔직한 제 성격을 잘 아셨던 신부님께서 아피를 권유해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한편 아피 수련생활을 하면서 주말마다 사직터널 바로 위에 있던 개미마을에 나가 100여 명의 녀마주이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고 식사나 폐품 정리도 함께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삶을 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죠. 개미마을은 박정희 정권이 출소자들을 '재건대'라는 이름으로 조직해 집단생활을 하며 녀마주이 등으로 생계를 잇게 한 것 가운데 하나였는데,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2년여 동안 개미마을 활동을 하고 있던 저는 가톨릭교리신학원을 졸업하면 개미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립 공동체를 만들어 평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일반 사회에 들어가 적응하며 사는 게 너무 힘에 부친 그들과 함께 공동체마을을 만들어 자립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피 수련을 시작할 때 제가 꿈꾸었던 삶과 딱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도시문제연구소의 '지역사회실무자교육'을 받으라니... 한동안 저는 '하느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6개월간의 훈련 이후에는 도시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어떤 계획도 없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잘 됐다. 훈련이 끝나면 다시 개미마을로 돌아가리라'라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실무자교육'을 받았어요.

#### 주민들의 한걸음 뒤에서 - 창신동 철거 반대투쟁

\*\*\* 69년 1월 3일 지역사회실무자교육 첫날, 훈련 지도를 맡은 화이트목사는 6명의 훈련생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 어떤 방향이나 방법도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역에 나가 보고 듣고, 그것에 대해 판단하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십시오.”

화이트목사의 이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지금까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꼭 지키려고 노력한 원칙입니다. 개미마을에 다닐 때도 미

처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그저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지역사회실무자교육의 훈련생은 기존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도시문제연구소가 제안하는 몇몇 지역에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염리동, 연희동, 정동, 창신동 네 곳이 제시되었는데, 저는 당시 살고 있던 삼선교와 가깝다는 이유로 창신동을 추천받아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창신동에 처음 갔을 때 그곳은 무척 험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낙산이라 불리는 돌산을 깎아 엄청나게 높은 꼭대기에 집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었거든요.

창신동에 방을 하나 얻은 이후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장원을 들락거렸죠. 계속 차례를 양보하며 그곳에 오는 엄마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며 무엇을 걱정하는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지역을 알아가고 사람들을 사귀어 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일 그날의 생활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훈련생의 의무이기도 했지요. 훈련생들은 매주 월요일 도시문제연구소에 모여 한 주 동안의 생활보고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이트 목사는 훈련생들에게 늘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려고 했는가 아니면 그들의 걱정과 생각을 들었는가 되물었습니다.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활동가는 조력자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훈련생들은 활동 방향이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그 시절 저도 듣고 기다리는 일에 많이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창신동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나 창신동 재개발문제가 터졌습니다. 서울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 도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도심 곳곳의 판자촌을 철거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광주군 중부면으로 집단 이주시키려고 했는데, 창신동도 그 대상이었죠. 도시문제연구소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도심 재개발사업이 논의될 때마다 아침에 집을 철거하면 저녁에 다시 세우는 일을 수차례 반복한 주민들은 이번 이야기도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그동안 사권 지역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광주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여러 대의 포크레인이 산을 깎아 내리고 빨건 흙을 갈아엎는 광경은 참 살풍경이었죠. 현장을 목격한 엄마들은 '이거 진짜구나!' 라고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반모임을 열어 대책을 논의했죠. 끈이어 철거를 알리는 게 고장도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2월 27일 정오에 서울시청 앞에 모여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들은 기저귀 천을 꿰어다 '엄동설한에 이사 못 간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싶다' '주민들에게 시민아파트 입주권을 달라' 등의 구호를 쓴 플래카드를 만들었습니다. 2월 27일, 700여 명의 창신동 엄마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아이를 업은 채 시청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주민 대표들에게 시청 안에 들어와 시장 면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안내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따라 들어간 엄마들은 곧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지하로 내려간 것이었죠. 미리 저와 의논을 했던 엄마들은 안내하던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사진기자들의 사진기를 부수는 등 격렬한 항의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청 앞 광장은 엄마들의 분노로 들끓었고 곧 100여 명의 엄마들이 종로경찰서, 동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되어 갔어요. 이 사건은 당시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동대문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좌천되었고, 우리들도 정보과 형사들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이후 주민들은 비록 서울시장은 아니지만 동대문 구청장과 직접 철거 대책을 협상할 수 있었어요. 중간에 주민대표를 맡았던 지역 남자들이 입주권을 주겠다는 동대문구의 회유에 넘어가 싸움을 무력화하려고 한 사건으로 주민대표단을 교체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 창신동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철거를 날씨가 따뜻한

5-6월에 단계적으로 하되, 마을 아래쪽에 가수용 시설과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도 등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시민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결과 창신동 철거민들의 98% 정도가 철거 이후 건립된 시민아파트에 입주해 오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시작할 때와 달리 계속 창신동에 남아 주민들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형성된 창신동 주민들과의 유대, 이제 막 지역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려는 상황에서 그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피 수련이 끝나고 평생 서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피는 제게 아피가 운영하는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일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아피는 어느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세 사람이 한 단위를 이루어 살도록 했는데, 창신동에서 살려면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서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추기경님이나 아피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피정신이 곧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신동에 혼자 살면서 그곳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저는 더이상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창신동 주민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가난하고 힘없는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후 저는 73년까지 창신동에 살면서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에 요구해 시민아파트 빈터에 주민센터를 만들고 어머니교실, 탁아소, 야학 등을 운영했습니다.

### **삶터의 발견 - 난곡, 국수모임**

\*\*\*지금 살고 있는 난곡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73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청계천에 위치한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의 현장 활동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는 도시문제연구소 도시선교위

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외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 활동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힘으로 더 적극적인 빈민운동을 하기 위해 1971년 9월에 만든 조직입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였는데, 활동을 판자촌과 같은 도시빈민지역에 집중하겠다는 뜻에서 1973년 1월에 이름을 바꾸었지요.

그런데 1973년 7월 초에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사건이 터졌습니다. 1972년 말 유신체제를 선포한 박정희 정권은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았고, 예배 참석자들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 몇 장 뿌린 행동을 '내란음모' 로까지 확대, 조작했습니다. 이 일로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는 권호경, 김동완 같은 주요 활동가들이 구속되고,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혼자 남다시피 한 저는 당장 가톨릭신학대학생들의 빈민지역 훈련 계획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 감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추기경님께 의논을 드렸는데, 당시 추기경님의 비서로 계시던 박준영 신부님이 낙골공소를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 찾아간 난곡은 비탈진 언덕길을 따라 10평이 채 안 되는 집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참 아늑해 보였습니다. 가파르고 험한 창신동이나 허허로운 뚝방의 청계천과는 사뭇 달랐지요. 곧 저는 낙골공소에서 가톨릭신학대학생 6명의 여름 훈련을 맡아 진행하는 한편, 난곡 꼭대기에 있는 공소 성모회장의 집을 매일같이 다니며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1미터도 채 안 되는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늘어서 있는 집들은 모두 그만그만했지만 성모회장의 집은 그나마 좀 넓은 편이어서 늘 동네 이집마들과 아이들이 놀러왔어요. 저도 1973년 말 난곡으로 이사갈 때까지 1년 정도를 창신동에서부터 아이를 데리고 다녔지요. 그때 만나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이후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늘 같이 하며 힘이 돼주었던 국수모임 사람들입니다.

서울 도심이 재개발될 때마다 밀려온 사람들로 형성된 난곡은 참 가난했습니다. 엄마들 대부분이 아침으로 쌀 조금에 보리와 밀을 섞은 밥을 해먹고



남편 도시락을 싸보내면 점심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 무척 허기지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가깝게 지내던 엄마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국수라도 삶아먹읍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15명이 모였지요. 우리들은 회원들 집을 돌아가며 한 달에 한 번씩 국수를 삶아먹으며 생활 나눔을 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을 올라오다 넘어져 다친 남편 이야기, 추운 날씨에 가파른 골목길이 빙판으로 변해버려 미끄러진 아이들 이야기 등을 하며 서로의 생활을 걱정하고 위로했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모두가 겪고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달기, 하수도 고치기, 공동화장실 만들기, 길 닦기 등 하루하루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문제부터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국수모임이 동회에 새마을 사업을 위한 시멘트와 모래를 요구해 받아오고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편들이 직접 일을 했어요.

### 자립적 주민공동체를 꿈꾸며 - 의료협동조합 실험

\*\*\* 국수모임을 계속하는 가운데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의료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몸뚱이가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프면 당장 치료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도 막막해지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의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서울대 의대 가톨릭학생회가 주말진료 지역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톨릭 학생회 지도신부님을 찾아가 그 학생들이 난곡에서 활동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학생들도 난곡을 둘러보고 마음에 들어했지요. 진료팀은 1974년 9월 15일 낙골공소에서 첫 주말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내과, 일요일에는 치과로 나누어 진료를 했고, 약값 정도로 진료비 100원을 받았습니다. 쌀값이 80kg 한 가마니에 만 원 정도 할 때였어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진료팀은 연말에 약

값을 정산한 후 남은 진료비를 추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역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주말진료는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그 결과 진료팀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환자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괜찮은 사람들까지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목욕탕도 자주 못하는 가난한 난곡사람들의 불만과 피해도 늘어났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모임을 중심으로 모인 지역주민들은 의료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하고, 회칙도 만들고 회원도 모집했습니다. 회원 가입은 세대별로 하되, 월수입 3만 원에 다섯 식구 이상인 가구 중 장기치료 환자가 있는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하기로 했고 회비와 진료비를 각각 매월 100원과 1회 200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공동체 활동에 동의하는 것을 회원 가입의 조건으로 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76년 3월 118세대를 회원으로 하는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난협)'이 출범했습니다. 난협은 주말진료팀의 도움을 받아 의료 활동을 하는 한편, 회원들의 공동체의식 향상, 교육 등에도 노력을 기울였고 남부고 등공민학교(검정야학)와 같은 지역의 다른 단체도 지원했습니다. 도시빈민 운동을 평가할 때면 난협 활동이 개량적이었다고도 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유신체제하에서 철거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도 아닌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서 난협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118세대로 시작한 난협은 회원이 2천2백 가구까지 늘어나는 등 지역공동체로 자리를 잡아갔는데, '신림복지관' 문제로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1981년 말 자선병동을 운영하던 한강성심병원이 그것을 폐쇄하고 난곡에 무료진료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난협은 주민들 스스로 의료협동조합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동일한 지역에 무료진료센터를 만들려

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활 노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조정을 거쳐 난협과 한강성심병원은 공동으로 진료센터인 '신림복지관'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센터를 운영하되, 신림복지관이 받는 진료비를 지역을 위한 기금 조성에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림복지관은 2년이 지나 제법 큰 돈이 모아지자 처음의 약속을 깨고 그 돈에 대한 한강성심병원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난협의 강한 반발로 약속이 지켜지는 듯했지만 곧 복지관은 지역의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난협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난협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의료협동조합 활동이 난관에 봉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신림복지관과 동사무소, 경찰서 등에서 흘리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로 심한 마음고생을 했어요. 이탈하는 회원도 있었지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해 지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출구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초기부터 함께 활동했던 회원들이 제게 힘이 돼 주었습니다. 회원들은 총회를 열어 1년간의 휴지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희는 신림복지관 문제로 상처받은 서로를 다독거리며 회원 교육에 힘을 쏟는 한편, 그동안 모은 기금으로 형편이 아주 어려운 주민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남부고등공민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위기를 회원들의 공동체적 유대와 지혜로 극복한 것이죠. 그리고 1985년 서울대 의대 진료팀과 함께 남부고등공민학교에서 주말진료를 다시 시작했어요.

10주년을 맞는 1986년 난협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난협 기금을 바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역위원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1988년에 이르러 가톨릭계의 도움을 받아 빈민지역 주민들을 위한 '요셉의원'을 설립했습니다. 요셉의원도 난협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의료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회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구로1동과 3동에 난협과 같은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

협 실시로 이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협동조합비와 더불어 국가가 실시하는 지역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역의료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이 뻥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쌌어요. 우리 동네 속옷가게 주인과 정주영의 보험료가 똑같았으니까요. 의료협동조합 회원들도, 병원 운영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빈민 지역 의료문제 해결의 대안적 모델로서, 도시빈민운동의 하나로서 의료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달라진 상황에서도 요셉의원을 원래의 위상대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요셉의원 원장은 자선병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결국 요셉의원이 원장의 의도대로 자선병원으로 전환되면서 난협은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죠.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발적 주민조직으로서 10년 이상을 활발히 활동해 온 난협이 와해될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도시빈민운동진영도 자발적 주민조직의 모델이고 새로운 시도였던 난협의 와해를 안타까워했을 뿐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했죠. 그후 우연한 기회에 일본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알게 되었을 때, '예전에 이런 사례를 알았다더라면...' 하며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일본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은 3차 병원까지 진료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서 국가의 의료보험체계에 영향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문제뿐만 아니라 육아, 교육, 노인복지 등 생활 전반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난관에 부딪힌 우리 의료협동조합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 지역주민운동의 성장 - 난곡지역협의회의 결성

\*\*\* 70년대 말부터 난곡에도 난협 외의 지역운동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야학으로 출발해 민중교회로 전환한 낙골교회, 아동교육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했던 해송어린이집, 낙골교회 공

부방 활동가들 가운데 도서관학과 출신들이 지역주민운동의 일환으로 만든 주민도서실 등이 난곡의 대표적인 주민운동단체였습니다. 그 중에는 해송 어린이집처럼 안팎의 사정으로 중간에 없어진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 현재까지 난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도시빈민운동에서의 새로운 시도도 있었습니다. 난협은 1977년에 회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름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수 없는 아이들을 다수 발견하게 되었어요. 도시빈민지역 대부분이 그렇듯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난곡 아이들은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기 십상이었죠. 그래서 가톨릭교회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반을 주 2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빈민지역 공부방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인천시의회 의원이었던 홍미영 씨는 난협의 한글반을 모델로 인천의 도시빈민지역에 공부방을 만들었고, 낙골교회도 1988년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방은 도시빈민지역 아동들의 소중한 터전이 되었고 주민 조직의 좋은 매개체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하게 됨에 따라 저나 난곡의 다른 활동가들은 각 단체의 활동 영역을 뛰어넘는, 지역 전체의 대중적 주민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부고등공민학교에 기증된 땅을 그 연고자가 되려는 바람에 남부고등공민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내 각 단체 활동가들과 난협 회원들은 그동안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남부고등공민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결의하고 주민들의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활동가들, 난협 회원 엄마들이 남부고등공민학교를 살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2,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고, 그것을 동작교육구청에 제출해 폐교를 막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젊은 활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힘이 결

합했을 때의 큰 효과를 체험할 수 있었죠. 그래서 1988년 5월, 난협·낙골교회·남부고등공민학교 세 단체가 모여 '난곡지역협의회(난지협)'를 결성했습니다. 다음해 만들어진 주민도서실까지 결합한 난지협은 매일 지역신문을 만들어 각 단체들의 활동 소식, 지역 현안 등을 주민들에게 알렸고 1990년부터는 해마다 주민노래자랑을 개최했습니다. 문화로부터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주민노래자랑은 주민들이 신나게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었고 동시에 지역의 단체들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외에도 난지협은 지역의 중요한 문제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거나 총선·대선 시기 공명선거감시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 생활공간의 정치 - '운동권 아줌마'의 의정 활동

\*\*\* 5·16쿠데타로 폐지되었던 지자제의 부활은 한국 민주화의 진전이나 지역운동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저 개인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지자제 부활이 거론될 무렵, 저는 80년대 말에 진행된 서울시의 대규모 철거에 맞서 계속된 철거반대투쟁으로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의 방향도 큰 걱정거리였죠. 그래서 저는 1990년 한 해를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말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평민당이 지자제 실시 시 정당추천제의 부분적 허용에 합의함으로써 지자제 실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도시빈민운동진영은 '지방자치공동대책위'를 꾸려 지자제 실시에 대한 입장, 참여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저 역시 지자제 실시가 지역운동에 미치는 파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나 저는 직접 기초의회선거에 참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기도 했고 제도권 정치는 저에게 여전히 싸워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방자치공동대책위'가 참여 전술을 결정하고 저를 기초의회선거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난지협과 난협 회원들도 제게 출마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말》지나 《연합뉴스》 등은 마치 저의 출마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터뷰를 하러 왔고 난협 회원 엄마들도 저를 찾아와 우리들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나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 노점상 동지가 찍어준 사진을 들고 관악구의회 의원선거에 맨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뒤늦게 결정하고 뛰어난 선거였지만 난협 회원들과 지역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저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돈을 쓰기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난곡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일해 온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의 힘을 주민조직 건설로 이끌어내고 난지협이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는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민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구의원과 지역조직 간의 상호관계 등에 대해 명확한 논의가 없었고 저나 다른 활동가들 모두 제도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목표했던 대중적 활동이나 주민조직 건설은 난항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 단체들의 활동과는 일정하게 괴리된 채 저 혼자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천주교도시시민민협의회(천도번)의 도움을 받아 공약 사항이었던 주민회관을 설립하고 공부방 운영, 주민 상담 등을 했습니다. 주민회관은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소인 셈이었지요 또 매월 의정보고를 함으로써 제 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더불어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했습니다. 이것이 곧 주민들의 참여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빈민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에서 구정을 감시하고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1999년에 ‘공공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관악구는 저소득층이 많은 구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집, 노인정과 같은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운영이 엉망이었죠. 관악구는 대부분의 공공시설을 위탁경영했는데, 위탁업체

가 부실경영을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데... 이러한 공공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지만 쉽게 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태조사에 이어 지역 주민 대표가 공공시설 운영에 참여해 공공시설이 실제 지역사회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관악구 내 공공시설 운영이 상당히 투명해질 수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도 이 조례안을 참고하여 각 지역구 의원과 지구당에 그에 준한 조례 제정 활동을 촉구했고, 과천·군포 등에서는 실제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빨 달린 운동권 아줌마'라는 선입견을 갖고 저를 대하는 공무원들, 가부장적 권위의식과 보수적 사고에 찌들어 있는 구의원들 속에서 단 한 명의 여성의원으로서 민민을 대표해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정치 참여는 소중한 성과를 안겨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추대하고 홍보했던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자신들의 힘과 소신있는 지원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의 의정활동이 지역 주민들이나 활동가들에게도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정보고나 주민회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살림의 내용을 파악하고 감시하며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정치의 주체로서는 아직 미완의 숙제인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못 했던 것, 즉 의원의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가들의 대중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 지자체 선거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조직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 등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또 다른 걸음-민주노동당 부대표

\*\*\* 제가 진보정당운동을 시작한 때는 97년 대선 시기였습니다. '국민승리21'의 여성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죠. 노동운동이나 중앙 단위의 운동이 낫설었지만 기초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중의 정치세력화, 대안정치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수락하고 대선을 치렀습니다. '국민승리21'은 이전의 진보정당운동이 선거 국면을 지나면 흐지부지된 것과 달리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 2000년 1월 민주노동당(민노당)을 출범시켰습니다. 저도 2회에 걸친 기초의회 활동을 정리하고 이 과정에 함께 했지요. 4·13총선 후에는 민노당 부대표가 되었습니다. 최순영 씨도 부대표로 활동한다는 것이 힘이 되었죠. 최순영 부대표는 오래전부터 노동운동 활동가로 익히 알고 있었지만, 1991년 지방의회 선거 후에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 활동가는 전국적으로 몇 안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하며 활동의 경험을 나누게 되었죠. 또 최순영 부대표는 부천시의회 의원이 되기 이전에 빈민지역 어린이집 활동, 어머니들 생협 활동 등을 했기 때문에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최순영 부대표와 저는 부대표 직을 맡으며 "우리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진보정당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같이 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현재 저는 민주노동당 부대표, 지방자치위원장, 서울시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난곡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역 일을 챙길 여유조차 없을 만큼 많은 역할이죠. 이 많은 역할 가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챙기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위원장으로서는 민주노동당이 지방권력을 창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조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정치의 변혁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그것은 바다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의 형성, 정치와 생활의 결합 등이 이루어질 때 중앙 정치의 개혁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 변

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지역정치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 민노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민노당 지방자치위원장으로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변해 가는 사회에서 '처음처럼' 사는 것은 무척 힘들고 드문 일이다. 특히 '압축적 성장'으로 근대적 가치와 사고, 문화마저 어설피 번용과 생각을 통해 형성된 한국사회에서 한결같이 낮은 자세로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아직도'라는 말이 종종 어리석음, 아둔함, 혹은 완고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그래서 여전한 모습으로 변혁을 꿈꾸며 자기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개 숙이게 된다. 김혜경이 그렇다. 그는 오늘도 예정된 재개발로 마을 대부분이 헐려나간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난곡의 좁고 경사진 골목을 부지런히 오르내리고 있다. 화려한 민주화운동 경력으로 신문 지상에 오른 적 없는 그에게 '민주노동당 부대표'라는 직함이 낯설기조차 하다. 그러나 민노당 부대표 겸 서울시 지부장으로 31개의 지구당을 꾸리고 각종 투쟁 현장을 찾는 일이나 난곡의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밥집' 운영을 걱정하는 일이나 모두 김혜경에게는 늘 해 왔던 일인 듯하다.

그렇게 지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다. 김혜경은 "글쎄, 별다른 게 있을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믿고 나를 믿어 주었던 사람들이지"라고 답했다. 이런 질문에 대해 흔히 들을 수 있는 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깊이를 곱씹지 않을 수 없었다. ■